



소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쓰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

2019. 9. 22.(다해) 제2179호



절두산 순교성지 사진 / 양병주 분도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순교자의 오늘



사람은 동물과 달리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의리를 위해, 혹은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사랑을 지키고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바칠 만큼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에 불과한 예수님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순교자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 살면서 편안히 잘 살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이 분명 계시고 그분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순교는 가장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며 자기 신앙의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명품을 좋아합니다. 하느님도 명품을 좋아하십니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 하느님을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은 하느님 볼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명품 자녀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하느님 안에 새로이 태어나 불멸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순교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기에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들이 보여준 불굴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자유 속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외부의 박해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박해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건 내가 쉽게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이 나의 신앙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를 박해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순교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의 나태함, 불신, 유혹, 욕망을 이기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교입니다. 일상에서 화나는 일 한 번 참는 것, 나에게 잘못된 이를 주님 때문에 용서해 주는 일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순교일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 대축일에, 우리도 순교자들의 위대한 신앙을 돌아보고 그분들의 후예로서 우리 삶 안에서 어떤 자세로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따를 것인지 다듬어 보는 은혜로운 축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궤**

최종현 베드로 신부 | 효성초등학교 교장



생태적 회심(回心)

그동안 이 지면을 통해 살펴본 생태 환경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식상할 정도로 자주 듣고 있지요. 그 '불편한 진실'의 책임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할 기술도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태 위기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어떤 이들은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못마땅해합니다.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천적인 일에는 소극적으로 머뭇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저는 생태 위기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생태 환경의 위기는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임에 앞서 근본적으로 내적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환경 문제의 윤리적 영적 근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적인 광야와 외적인 광야의 크기가 서로 비례한다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지구 생태계의 황폐화는 우리 내적 문제의 외적 징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태 위기를 단순히 우리 외부의 문

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가 병이 난 것은 우리 마음과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은 소홀히 한 채 정부의 규제나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환경 정책을 개선하고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는 않지만, 우리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때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적 위기가 요청하는 내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생태적 회심”을 강조합니다. 문제에 대한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치 불난 집에 불을 끄는 것처럼 빠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발전인지 성찰하며 의식의 전환을 이루자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생태적 회심은 ‘행위(doing)’의 문제를 넘어 ‘존재(being)’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잘하자는 단편적인 실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과 지구 공동체와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 회부터는 이러한 생태적 회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필문**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교좌 범어대성당 프란치스코 축제

2019. 10. 4. ~ 6.

오는 10월 4일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1181~1226)은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 페루자 지방의 한 가운데,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직물 사업을 운영하여 큰 부를 누렸으며 때마침 아이가 태어날 무렵 프랑스에서 큰 거래를 성사시켰기에 이를 기리고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7남매 중 장남으로 잘생긴 인물에 활달한 성품을 지녔던 성인은 ‘멋진’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다소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즈음으로 치자면 인기 가수라 할 수 있는 당대의 음유 시인들에 열광했고 프랑스 남부 지방의 문화를 골라 즐겼습니다. 그러다 젊은 혈기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일 년간 포로로 감금되기도 했고, 또 폐결핵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십 대 중반에 이르러 주님 말씀을 체험하면서 예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일이 뜸해지더니 마침내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뛰쳐나와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프란치스코회를 설립했습니다.

“수많은 열매와, 알록달록한 꽃,
그리고 온갖 풀로 우리를 길러주고 떠받치는,
누이 같은 대지의 어머니 그 풍요로움으로,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성프란치스코 <태양의 노래> 中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거울’로 여겨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태양과 달, 바람과 동물과 식물, 심지어 죽음이나 질병도

그에게는 ‘형제자매’였고, 대화의 상대였습니다. 이러한 대자연과의 소통은 궁극적으로 주님께 대한 찬미로 이어졌습니다. 소싯적 화려했던 생활의 흔적인지는 몰라도 평소 음악을 무척 좋아해서 순례길을 떠날 때는 늘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마흔다섯 살 짧은 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를 당신의 몸에 똑같이 입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난하게 살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대교구 주교좌 범어대성당은 프란치스코 성인을 제2주보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좋은 기도의 도구요, 형제 사랑의 기회가 됩니다. 주교좌 범어대성당에 드망즈홀과 갤러리를 두어 지역 사회와 문화적인 호흡을 같이 하고 가톨릭교회의 문턱을 낮추고자 한 것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주교좌 범어대성당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념일인 10월 4일부터 삼일 동안 <프란치스코 축제 2019>를 열어 아름다움을 나누는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성가대 콘서트』 10월 4일(금) 오후 7시, 드망즈홀

『카나 앙상블 및 젊은 가톨릭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광장 음악회』
10월 5일(토) 오후 7시, 대성전 광장

『대구대교구 자매 교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대성당
오르가니스트 헤리베르트 메츠거 초청 연주회』

10월 6일(일) 낮 12시, 대성전 **관람**

위로의 어머니께

좋으신 어머니,
당신은 내 어려움을 고르시며,
비탄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유혹 속에서 당신을 찾을 때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인들께서 당신을
조난자들의 항구,
곤경에 처한 자들의 도움,
고통받는 이들의 구원,
섬이 없는 자들의 안식 등으로
부르셨음은 옳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나는 죄로 무거워져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사랑은 차갑기만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드님을 기쁘게 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부디 나를 도와주소서.
어머니,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St. Alphonsus Mary de Liguori, 1696~1787)

: 설립자, 주교, 교회학자, 윤리신학자의 주보성인

지혜의 숲

발견

“저희가 하느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서는 아무도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왜 그렇지요?”

“아무도 물고기가 바다를 찾게 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2019년 세계 관광의 날 (9월 27일)


관광과 노동: 모든 이를 위한 더 나은 미래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장관 **피터 코도 아피아 텍스** 추기경님의 2019년 세계 관광의 날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 | | | | | |
|---------|--|---------|-------------|-----|------------|
| 제 1 독 서 | 지혜 3,1-9 | 제 2 독 서 | 로마 8,31ㄴ-39 | 복 음 | 루카 9,23-26 |
| 화 답 송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 |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 | | | |
| 영 성 체 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 | | | |




“2019-19 당신!”


대구ME 40주년 가족콘잔치

2019. 10. 9.(수) 오전 9시 30분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루카 18,41)

대상: ME 주말을 수강하신 모든 분
내용: 1부 - 40주년 발자취, 주말회상, 점심(12:30부터)
2부 - 축하공연
3부 - 감사미사 (16:00,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주례)
티켓: 현장구매 1만원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문의: 053-983-0521





제8차 대구 가톨릭 약혼자 주말

일시: 10월 11일(금) 19:00 ~ 13일(일) 17:00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혼인한 지 2년 미만 신혼부부
문의: 청년국 053-422-6692 / 010-6219-4812
접수: 청년국 누리집 (<http://www.dcy.co.kr/cee>)

- * 약혼자들이 혼인 후 실제 부부관계에 대해 함께 준비하도록 돕는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 * 혼인식은 하루지만, 혼인은 평생입니다.(비신자도 참여 가능)
- * 혼인을 위한 혼인강좌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순교자 성월인 만큼

박성규 엘리시오

가까운 순교성지를 자녀와도 함께...

미사

| | | | |
|-------------------|-------------------------|------------------|------------------------|
|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 9월 23일(월) 11:00 도량성당 |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미사 | 9월 24일(화) 14:00 신암성당 |
|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9월 23일(월) 11:00 계산성당 | | 9월 24일(화) 19:30 다사성당 |
| 오순절평화의마을 9월 후원회미사 | 9월 23일(월) 11:00 수성성당 | | 9월 25일(수) 10:00 죽도성당 |
|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9월 23일(월) 10:30 범어성당 | | 9월 25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
|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 9월 25일(수) 19:00 평화성당소강당 |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 9월 28일(토) 11:00 순례자성당 |

성소 | 피정

살레시오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1회 토 12:00 변경 가능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대상: 중·고·대학, 일반 미혼 남성

문의: (010)3894-1332 / (010)5159-3949

자비메르세다리아스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원하는 때 / 장소: 원하는 곳

대상: 자비와 해방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

문의: 채세실리아 수녀, (010)9492-0295

http://www.mercedarias.kr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일(상담 후 변경 가능)

장소: 부산 수녀원

대상: 42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9199-4995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예수 마음 피정: 10.2~10 / 10.16~20

이냐시오 피정: 10.2~6 / 10.18~20

에니어그램: 10.25~27 / 11.29~12.1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신청: (031)946-2337~8

대림·성탄을 위한 소품 제작과 기도 모임

일시: 10.12 / 11.9 / 12.14

둘째주 토 14:00~17:00

장소: 소화어린이집(달서구 월곡로 51길)

대상: 미혼 여성 / 회비: 총 3회 2만원

신청: 노틀담수녀회, (010)9394-2274

베네딕도영성관 피정

주부들을 위한 피정: 10.15(화), 11.5(화)

신약 통독(서간): 10.17(목)~20(일)

하느님을 찾는 여정: 10.19(토)~20(일)

문의: (010)7103-3425 / 313-3425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 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태극권, 제대꽃꽂이,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레벨별·왕초보·원어민영어,

미술심리2급자격과정 / 신청: 254-6115

남대영기념관 매듭묵주만들기 문화 강좌

일시: 10.14, 21(월) 14:00~16:00

재료비: 2만원(20명 선착순)

문의: 629-1117 / (010)8682-4237

가톨릭문화관 벨칸토 가곡교실 모집

호흡법 발성법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개발해 줍니다.

장소: 가톨릭문화관(성토마스성당) 2층

강사: 테너 박영식 교수

문의: (010)2878-2467

제6회 서울가톨릭국제미술대전

작품이미지 접수: 10.1(화)~31(목)

주제: 품다

주최: 서울대교구

주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문의: (02)3142-4504 / www.sciac.net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10.15~17 / 11.5~7 / 12.17~19

장소: 제주성지 6곳(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

문의: (064)805-9689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회) 모집

마감: 12.31(화)

대상: 55세 이하,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교우

문의: (010)9316-408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

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2대 반세기, 건강관 관절,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5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여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전증 학회장
대구 경부회(대)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T. 053)252-0418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수익사업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논공)성요양병원장례식장 053-617-3644

T. 053-650-4444, 053-657-4444

우리 장례식장 수익금은 전액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쓰입니다.

전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논공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70% 할인

영대 + 영남

결혼 ♥ 정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대표 이 정 희(안젤라)

T. 817-9990 M. 010-9522-2787

경산 영남대학교 정문 앞

헤 렌 디자인하우스

프리미엄 디자인가구

박성용(알밭도) 권나경(수산나)

대구시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가구로 지하2층) Cell : 010 7766 3198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홀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40년 전통 수제떡 전문

떡마루

100% 국내산 햅쌀, 천연재료 사용

답례떡 / 각종행사 / 개별포장

대표 김 민 영(베네딕도)

무료배송 010-3956-8457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동한(가롤로) 신부
1983년 9월 28일

행사 | 모임

바느질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일시: 9.26(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2019년 제7회 'Concert for Mom'

나의 대화 소통 방법 알기와 진로
내비게이션 특강과 토크 콘서트
일시: 9.28(토) 10:00 / 참가비: 1만원
장소: 교구청 별관 4회합실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2019년 교구 공동체와 구역의 날

일시: 10.19(토) 10:00
장소: 교구청 다동 대강당
대상: 구역장, 반장, 공동체 봉사자
참가비: 5천원(점심 제공) / 마감: 10.8(화)
문의: 교구 사목국 복음화담당, 250-3056

흥해성당

새성전 봉헌식과 성모당 축복식
일시: 9.28(토) 10:00(목주기도 9:30)
문의: (054)262-2258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주님께 영광'
일시: 9.30(월) 19:30
장소: 계산성당

전석 무료, 선착순 입장
문의: (010)3463-5191 / (010)3787-7070

교육 | 모임

노년을 위한 토빗 피정

일시: 10.16(수) 14:00~17(목)
장소: 한티피정의집 / 마감: 10.4(금)
대상: 65세 이상 신자 / 신청비: 6만 5천원
주최: 교구 가정복음화국
문의: 250-3077, 3114

본당 청년 회장단 연수

일시: 10.20(일) 9:00
장소: 대구가톨릭신학교 강의동
대상: 각 본당 청년 회장단
신청: <http://dcy.co.kr>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대구가톨릭평화방송 개국 23주년 음악회

일시: 10.5(토) 17:00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출연: 지휘 김성진 / 디오오케스트라
바이올린 고소현, 구미시립합창단 외
예매: (3만원, 2만원)251-2631, 티켓링크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영성 강좌
일시: 10.16~11.20 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합실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힘, 공동체로 초대받은 우리
수강료: 8만원 / 문의: (010)8441-8011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후원자 모집

가난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외 9개국 14개 지역에서
후원자 감사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문의: 423-3008(내선 2번)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봉사자 모집

대상: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이수자
문의: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253-1401

채용 | 안내

대구SOS어린이마을 공부방 교사 채용

자격: 교직 정년 퇴임자
업무: 월~금 16:00~19:00
마감: 9.30(월) 18:00
문의: 983-3154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명숙(젼마)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ac.or.kr>

정정합니다

지난(15일자) 주보 4면에 게재된
효령 하늘집 피정 신청 및 문의는
010-6263-8458로 정정합니다.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흥단지로 45 전지관 1층 239호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의학박사 박종원(소시모)
(한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인 장주현(비비인나)·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아네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SM 수맥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

이집트 일주 성지순례
카이로 · 알렉산드리아 · 와디나트룬 · 룩스
후르가다 · 아인스크나 · 시나이산 피정
출발일 : 12월 2일 (11박 12일)
T. (053)253-3399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참사랑실버요양원
참사랑인지마을
주님 안에서 어르신들 내 부모처럼 모십니다.
● 인지마을(치매전문) 오픈 (대표이사 전재일(요셉))
● 호스피스실 운영 (원장 최용병(베네딕토))
● 장기요양인정등급 1~5(시설등급) 받으신 어르신들 모십니다.
대구 서구 가톨릭로21길 3 | 상담전화 053)563-0657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옆 7층 TEL. 053.421.7585